

41 김영순평원, 박성원초원 연합예배 보고서

1. 모임 날짜 : 2016년 11월 6일
2. 장소.시간 : 5층 유치부실 오후2시~7시
3. 인원 : **조수연마을** 152-1조수연A목자, 152-2오정인A목자, 152-3한순옥목자, 152-4김숙희D목자, 152-5변태영목자
위혜정마을 153-1위혜정목자, 153-2이경희D목자, 153-3고춘미목자, 153-4정해순B목자, 153-5임명희A목자
양경남마을 154-1양경남목자, 154-2홍순영A목자, 154-3최미원목자, 154-4박정아목자, 154-5김현미B목자

찬양

홍순영목자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연합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김영순 평원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이런 공동체에 있게 됐을까,? 이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의도 큰
교회 목사님은 부인이 암이셨는데, 발병1년 후에 교회에 오
셨더니 그 반응은 위로의 말도 있었지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병에 걸렸을까 하는 반응도 있었기에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환영 받지 못했는데 목사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환영 받을
수 있겠는가..” 50%가 환영했다면 성공하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아론의 모습처럼 대접 받는 모습에 익숙해질까 봐 떨립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믿음 없는지를
보기 위해 QT.를 합니다. 아론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 생색나는 것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될 수 있습니다……

박성원 초원님이 든든하신 이유는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박성원 초원님
남편 분께서 치리를 받고 계십니다. 온갖 고난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신 초원님께 무덤덤하기만
하시던 남편분이 등산가서 동창의 손도 잡아주시고 … 그러나 박성원 초원님은 누군가 나를
좋다고 하면 장담 못한다고 하시며 나도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가십니다.

박성원초원님

“나를 대신해서 남편이 치리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울 초원의 한 미모~~하시는 마을님들 소개 시간!!!



조수연 마을지기님

강박의 대표이십니다.
ADHD와 강박의 싸움에서는
강박이 이긴다고 합니다.
강박의 은혜로 오늘 연합예배의
먹거리와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고난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며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위혜정 마을지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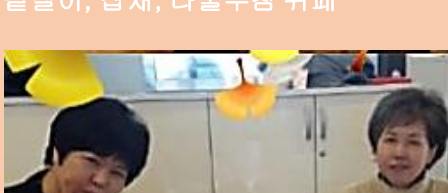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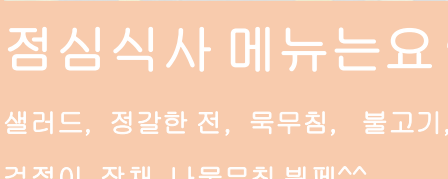
자기가 마을지기님이 된 것이
신종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말고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분이십니다.
직장, 돈, 집 다 준비되어 있으니
주변에 믿음의 형제 보시면 꼭
소개해주세요~~



양경남 마을지기님

건강한 모습으로 섬겨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집을 하나 툇 떨어뜨려
주셔서, 여전한 방식으로 목장과
목원을 섬기며 가시면 상급을 주신
다는 롤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메뉴는요 ~
샐러드, 정갈한 전, 묵무침, 불고기,
겉절이, 잡채, 나물무침 뷔페^^

목장소개 순서네요 ^^

152-1 조수연A목자



조수연 목자 : 강박이 있습니다.

이상은 : 고난의 종합선물세트 (경제고난, 시댁고난, 과부, 자식고난, 암질병의고난) 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민주 : 조증으로 약드시고 있습니다.

황은이 : 목사님남편과 이혼 생각하며 우리들교회에 마지막으로 왔는데 집 경매사건으로 은혜롭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김정애 : 세례받지 않은 초신자 입니다. 호호 불어서 가야합니다.

한유경 : 교회 잘 다니다가 세상이 좋아 안 나오시니 사건으로 돌아온 탕자(탕녀) 입니다.

오정인목자 : 12년전 남편의 가출, 이후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들 교회에 정착하여 잘 가고있으나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김은미 : 남편과의 소통부재로 집을 나온 뒤 주님의 은혜로 7년만에 귀가. 요즘은 은혜 받으며 영적, 육적으로 목장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김명신A :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 죽음 이후 여러 교회 다니며 방황, 최근 남편의 사업장에 세금 폭탄을 맞은 일을 주님이 부르시는 사건으로 잘 해석하며 갑니다.

문혜현 : 딸(서운) 어렸을 때 이혼,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친정에서 가장의 역할까지 하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황아라 : 결혼 앞두고 예비남편이 구속되는 사건이 생겼으나, 이제 판결을 앞두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매일 큐티하며 은혜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152-2 오정인A목자

“조수연 마을을 소개합니다”



152-3 한순옥목자

김숙희 목자 : 내 열심과 기복으로 달려오다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통해 우리들공동체로 오게 되었고,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오는 것과 작은 아들이 양육도 안 받고 주일예배도 빠지는 날도 있고 목장도 안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고난입니다.

김애숙 :안 믿는 남편과 불신결혼, 막중한 외며느리 역할의 스트레스와 육신 질병으로 죽음의 고통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님도 교회 나가시고 남편과 함께 부부목장도 나가고 있어서 특별한 가족 간의 갈등도 특별한 고난도 없습니다.

심연선 :남편의 바람사건이 왔습니다.“이혼은 안 돼!! 가정은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 들려 주일,수요,목장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나, 순간순간 너무 힘이 들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기하고 싶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정은수C : 남편의 이혼소송으로 2년여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살려고 대전에서 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바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물질고난까지 겪으며 대전에서 교회오는 교통비가 걱정입니다. 이혼판결로 재판이 끝났지만 남편이 재산을 판결대로 줄 수 없다고 항소까지 했습니다. 앞뒤가 꼭 막힌 상황입니다. 이 광야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윤미C : 남편과 불신결혼 했습니다. 주일아침마다 아들을 예배에 데려오려고 아들 깨우는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 혼자 교회오는 날이 많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내려놓고 주일예배시간에 늦지 않게 교회 오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혜련 :해고된 직장 상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다시 오라는 제의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처방받고 출근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을 텐데 “오늘 하루만 잘 견디자” 며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갑니다.

변태영목자 :낙태와 음란의 죄패, 척하는 병으로 안 아픈척하고 살다가 최근 목사님의 처방으로 병원가서 우울증치료 받고 있습니다.

김영신 :남편의 바람 사건을 말씀으로 잘 이겨냈으나, 남편과 대화가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김순자 :남편 고난 자녀 고난 물질 고난 종류별로 다 겪으며 잠시 딴 길로 갔다 돌아왔습니다

김순경 :믿음안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회복되고, 학원 운영과 강의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힘든 아이들을 살리고 갑니다.

김윤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왔으나 말씀으로 안정을 찾고 지금은 남편과 아이에게 인내하며 말씀 적용하는 중 입니다.

서미경 : 최근 하나님께서 아들과 남편의 사건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기 보다 아직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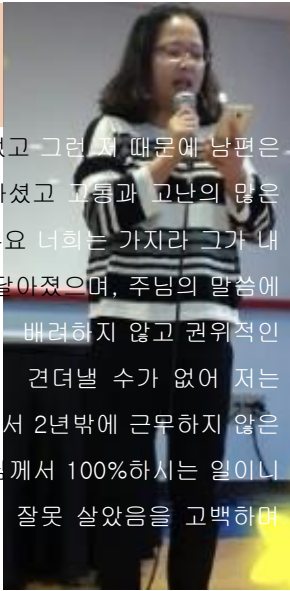
허경숙 : 얼마 전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변은미 : 피땀기는 부부 싸움을 했고, 그로인해 욕구 불만으로 머리박으며 자해하는 아이를 보며 정신차리고 말씀 적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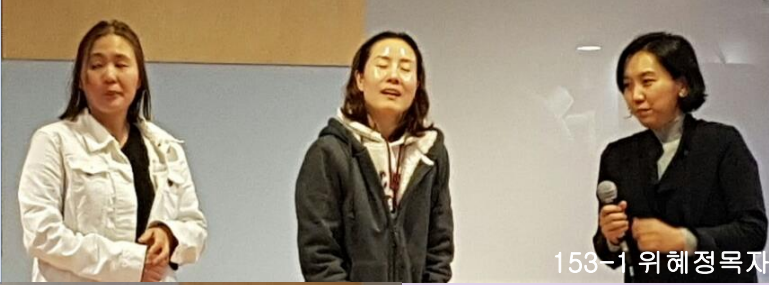
친정에서는 불교에 열심인 할머니 영향으로 늘 절과 불경이 익숙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또한 불교와 무속 신앙을 믿었습니다. 시댁에서 1남 5녀의 외동아들인 남편과의 결혼, 시집살이는 정말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시댁에서 외동아들인 남편은 부엌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반면 저는 임신하여 배가 불러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쉬지도 못하고 시댁의 4000평이 넘는 대추 농사일을 매 주 돕기 위해 밀양 시댁으로 향해야하는 애급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어린 며느리가 일이 서툴러 느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시누이들과 가족 앞에서 무시하며 짜증을 내셨고, 그런 그들 앞에 혼자인 저는 언제나 기가죽었습니다. 탈출하듯 인천으로 이사했고 둘째를 낳고 산후풍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복적인 신앙생활이었고 하나님은 그냥 신으로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저의 신앙수준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며 열정으로 이웃을 전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 아닌 행복을 갈구하다 보니 저와 가정에 무심한 남편이 미웠고 원망이 되어 이럴 거면 이혼하자며 조르던 죄인이었습니다. 늘 병환으로 아프신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다른 시댁 식구들은 나물라라 하는데 계속 우리만 내는 것, 말이 통하지 않고 나를 힘들고 외롭게 하는 남편도, 말 많고 미운 시누이들도 저에게는 짐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이 죄인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심은경집사님 (152-3 한순옥목장) 간증

탐심이 많고 음란하며 교만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2011년 강박증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게 두렵고 불안한 저는 거의 집에만 갇혀 있었고 그런 시 때문에 남편은 분당에서 대전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남편도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계속 확인하는 강박증 때문에 성경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비로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장 5절)는 말씀이 철저하게 깨달아졌으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했지만 저의 강박증과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권위적인 교감선생님 때문에 매일 매일 생활이 힘들고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우리들교회에 등록하여 부부목장을 다녔었는데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 저는 시작하려고 목자님과 권찰님 공동체 지체들의 만류로 타협하듯 전출신청을 냈습니다. 보통은 4년 이상이 되어야 전출을 신청하는데 저는 전 학교에서 2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탓에 전출을 내는 저를 대놓고 교감선생님께서 무시와 조롱을 하시며 전출이 안 될거라 장담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안 되면 그만두고, 옮기면 주님께서 100%하시는 일이니 별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전출을 신청하고 하나님께 그동안 삶에 주인이 내가 되어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져 교사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거룩하게 감사하며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두가 믿을 수 없게 지금의 학교로 전출하였고 지금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달으며 감사히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길고 어두운 터널같은 삶이 언제 끝날까 죽고 싶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말씀과 예배, 목장공동체를 통해 살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 더 이상 연연하기보다 회개와 감사를 회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목장을 다니면서 2년동안 가정을 한 번도 오픈을 못했었는데 지난 9월부터 집을 오픈하여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번 목세기간에 목장 탐방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낯지 않는걸까? 하며 내 사연에 매여 죽을 인생이었는데 여전히 강박증은 남아 있지만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 집에서 날부러져 늘어진 시체같이 있지않고 주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박증으로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며 믿지 않던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조롱에도 분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라고 의연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진실 되게 섬기고 가니 하나님께서는 2015년에는 시어머님도 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쾌락과 행복이라는 거짓된 애급에서 총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삶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그 거룩을 이루려 말씀에 의지하려하니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응답해 주시며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153-1 위혜정목자

위혜정 목자 : 마을지기의 사명이 고난입니다.

윤옥희 부목자 : 부모 고난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고, 현재는 첫 시험관 아기가 안되고 빠져 있습니다. 다시 시술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자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들교회 등록한지 2년 되었고, 남편이 이혼을 위하여 4년의 시간을 보내다 최근 결국 이혼의 시절을 맞이하여 정리의 시간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53-3 고춘미목자

위혜정마을을 소개합니다



153-2 이경희D목자

고춘미 목자 : 제주도에서 낳고 자라 40년, 딸 고난으로 우리들교회에 와서 수지맞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은정부목자:우리들교회에 와서 남편과 소통이 되어가는 가정으로 회복 되었습니다.

임명희 목자 ; 캐나다 한인 교회 후보에 담임목사님의 저서인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이 권장 도서로 소개되어 있음을 보고, 문서 선교가 되고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고영분 :돈 벌지 못하는 남편이 짜질해서 이혼하고 10년을 동거한 남자친구는 본처에게 돌아가 인생을 허비한 시간을 회개하면서 재결합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례 :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남편이 빛이 있어 호적정리를 못하고 살지만 그 또한 감당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홍진숙 : 애기 때 절로 입양되어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고,마마보이에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도 몇 번을 생각했으나 우리들교회로 인도함받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영표 : 큰 아들을 큰 집에 양자 보냈는데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대순진리회와 절에 잠깐 다니다 교회에 온 첫 날 말씀이 들렸고 너무 좋습니다.



153-4정해순B목자

정해순 목자 : 살기위해 큐티하며, 친정 구원을 위해 라함되기 원합니다.

오은순 부목자 : 13년간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 온전히 말기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살았기에 늙고 병들어서야 무거운 짐 주앞에 내려놓고 두손 들고 납작 엎드립니다

정영신 부목자 : 세상 왕을 쫓아 불신결혼하고 13년째 종살이 중입니다. 너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던 인생에서, 나를 훈련해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화 집사 : 교만과 인정중독에 빠져들어 세상적 성공을 위해 극성을 떨다가 남편의 수고로 교회에 오게 된 베이비 크리스찬입니다.

박정은 집사 : 착한줄 알고 고집으로 살다가 노예 15년을 보내고 자유를 주셔도 아직 노예 근성이 남아 노예로 왔다갔다 하는 집사입니다.



153-5 임명희목자

저는 친정 아버지께서 전처와의 사별 후 2남 2녀를 출가 시킨 후, 딸 1명이 있는 친정어머니와 결혼하여 오빠와 저, 여동생 2명을 낳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지방의 유지이시며, 국가로부터 경제적 발전의 공로로 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와 명예 연세 드셔서 얻은 딸이기에 예뻐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실히 일 하시며, 늘 한문을 펼쳐서 책 읽으시며, 대,소사를 낱낱이 기록하시는 아버지와 무학자 이시지만 음식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어머니를 보며 유교적 가치관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공부욕심으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도시로 전학을 하고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며, 책과 일기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적으로 의지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구의 전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기독교대학에 들어가서 중어중문을 공부하고, 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경공부와 전도를 하며 건전하게 유학생생활을 했습니다. 그 뜨거움은 잠시, 세상 권세를 누리다 보니 내 열심으로 하면 될 것 같아 학벌도 아닌 집안 배경을 보며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13년간의 시집살이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중국 고전 문학에 심취하며, 사서 삼경과 어려운 고전을 보며 ‘나는 너랑 다르다’라며 혼자 잘 난 척을 했습니다. 1남 1녀를 키우며 아이들이 다 크면 친정으로 돌아 가리라 생각하며 살았을 때 시댁에서 외도녀와 치킨 가게를 이곳 정자동에 차려 주면서 친정 엄마 몰래 이혼을 했고, 3개월간 시집 안 간 동생과 살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재결합 후 여전히 계속 되는 남편의 바람, 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며 “해순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열심이 특성이 되어 파산된 치킨가게를 일구면 남편이 돌아오고 3개월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기 그릇 앞에 놓인 자라처럼 올라갔다 싶으면 또 미끄러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며 3년 동안 제 열심으로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 남편에게 가게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양육으로 안식을 누리며, 제 죄가 보이게 되니 입이 다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뒤에 숨어서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임을 알았기에 ‘어찌 남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를 부르짖으니 ‘사람 선생님’ 같더라는 말을 듣고, 매력이 딱 없는 재수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정해순목자님 (153-4목장) 간증

요즘은 남편이 ‘나 때문에 김양재 목사님을 만났잖아’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말에 ‘옳소이다’가 됩니다. 말씀 안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나의 현위치에서 엄마의 때, 아내의 때를 살다 보니, 남편은 예배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지만,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쑥쑥 자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새벽에 들어와 내 옆에 자는 남편의 모습도 이제는 편안합니다. 남편의 수고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고, 친정 어머니의 위암 사건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쪽 같으신 친정 어머니께서 목사님 병원 심방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보짓을 하며 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 주일 학교에 가며 율동하고 찬양 하는 게 즐겼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청년의 때 전도하고 성경공부하며 반사로 성가대로 섬기면서 여호와와의 전에서 뛰어 놀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저를 호호 불러 가시며 견인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 2) 말씀 붙잡고 믿지 않는 친정집 구원을 위해 라합처럼 구원의 길목을 여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며, 목장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영,육으로 풍성히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애통의 마음과 이타적인 삶의 모본이 되신 담임 목사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며, 치료 과정마다 육의 회복을 지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4-1 양경남목자

“양경남마을을 소개합니다.”

홍순영 목자 : 인정중독, 내 열심, 내 의로 다져진 나로 인해 자녀들이 힘든 삶을 살아오고 순진한 남편이 고생하고 있음이 미안합니다. 힘든 것이 환경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이라 여겨지니 회개할 것만 많은 인생입니다.

박경희 부목자 : 섬겨야 할 오빠와 여동생 둘 사이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화장실 갈 시간조차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육신의 힘듦을 다 감당하며 갑니다.

원영희 : 남편이 천국가시고. 딸과 함께 지내며, 아프고 힘든 딸을 통해 훈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유희 : 아들 출산 후 5개월만에 시댁에서 뛰쳐 나온 채 남편과 8년째 대면하지도 못하고 있고,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없어 기도합니다.

최정옥 : 우리들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례받았습니다. 양주에서 혼자 지내며, 딸의 가정에 막힌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154-3최미원목자

정광남 부목자 : 싱글이고 전도사 경력으로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았는데 think교사양육과 정신과 상담 통해 자신을 직시하며 깨져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목자도 너~~무 하고 싶어요^^

최혜선 부목자 : 요양보호사로 이혼하고 아들이랑 살고 있는데, 뭐든 혼자 처리하며 살다보니 다른 사람 얘기가 귀에 잘 안들어옵니다.

김혜정 : 멀리 홍천에서 예배 사수! 재혼 가정으로 남편, 전처 딸, 내아들, 우리아들 키우며 사역을 위해 훈련 받고 있습니다.

손혜선 : 남편 사별 후 아들이 힘들어 해서 왔는데, 아들은 안 나오고 집사님이 은혜 받으며 가고 있습니다.

최은영 : 카이스트 출신 과학자입니다. 남편이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말씀 들으며 내가 얼마나 이상한지 보고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책 1달에 1권씩 10개월동안 10권 받아 읽고, 멋진 목사님이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154-2 홍순영A목자

최미원 목자 : 남편의 바람, 부도, 오랜실직의 죄뒤에 숨어 내 죄는 잘 안보인다고 하는 교만하고 생색 대마왕 죄인입니다. 출산하고 집에 와서 몸조리중인 딸이 흑여라도 산후 우울증이 올라봐 잘 돌보느라고 고단하지만 이쁜 손주 때문에 엔돌핀이 솟아 고단함을 잊고있네요 ~

심미경 부목자 : 한번은 이혼증서 내어주고, 또 한번은 이혼증서 받고, 세번은 없다는 평원님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서 힘들지만 사명을 찾아갑니다.

이한샘 부목자 : 메르스 연구원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불신결혼했다가 남편 사업이 망하고 미국으로 도망가버려 할 수 없이 이혼했는데, 우리들교회 와서 가정회복의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영미 : 늘 운동하며 산을 다녀서 체력이 좋습니다. 남편이 산악회 회장인 고로 여러 여자분들과 산에 다니시니 꼬리만 잡혀봐라 하고 있습니다~



154-4 박정아목자

“영성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박정아 목자 : 불신결혼, 시어머니 빚보증과 남편 외도로 별거 7년만에 이혼, 15년간 단절된 부녀 관계 회복을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하는 적용을 기도 중입니다.

정미화 부목자 : 2006년 유학 좌절의 고난을 겪으며 스스로 우리들교회 청년부에 등록, 불신가정의 나홀로 믿음입니다. 가족의 영혼구원 사명과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 신결혼하게 되길 간구합니다.

김영지 : 불신결혼과 이혼의 죄패. 말씀이 들리는 만큼 조금씩 나를 직면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폭풍 회개, 최근 아직 독신인 전남편과 불신 시댁 구원의 사명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김지연 : 내 생각의 틀, 고정관념이 강함. 온화하고 착한 성품이나 경직된 내 생각의 틀에 매여 나눔이 제자리 걸음. 말씀에 비추어 내 죄를 정죄함이 아니라 회개하게 되어 진정한 평강 누리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선우 : 모태신앙임에도 능력있어 보이는 남편과 불신결혼하고, 신혼부터 끊임없이 외도하던 남편이 2년전 이혼 요구하며 집을 나가 사업 파트너와 동거중. 불신시댁에서 시댁의 모든 제사와 명절을 챙기며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비굴하고 미련한 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우리들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혼에 동의하고 싶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는 중입니다.

신현주 부목자 : 남편의 외도와 외도녀의 임신으로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하였음을 알고, 살 수가 없는 가정이었지만 말씀과 공동체에서 양육 받으며 가다보니 딸은 청년부에서 오픈과 치유를 받으며 최연소 목자가 되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의 공동체에서 오픈하며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셋째를 낳아 늙어서 키우는 것이 힘듭니다.

정정희 : 올해 4월에 부부가 교회에 와서 예배와 부부목장까지 잘 정착하고 가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남편과 선을 봐서 한달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하여 남편의 외도, 부도, 혈기충천한 남편과 이혼 안하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제대 후 무기력으로 게임중독에 빠져 있는 작은아들까지 공동체에 입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진F : 작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살도 대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편과의 이혼위기로, 우리들교회 가면 이혼 안한다고 가보라고 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이혼하고 바람피겠다고 하는 등 1년만 다녀보고 이혼하리라 생각했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달라 다투기도 하지만 계속 살고 있습니다.

큐티의 가장 큰 열매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의 목을 밟는 것이 큐티의 적용입니다.



154-5 김현미B목자

황옥진집사님 (154-5김현미B목장) 간증

결혼하기 전 선배언니의 전도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기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였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독립이 안 된 남편과의 갈등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지만 매사에 간섭하며 중용하시는 시어머니와 그것에 한 치의 틀림도 없이 행하는 남편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때는 어머니가 우울증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주일마다 시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하여 4시간 이상 걸리는 피곤한 여행을 하였고, 아이들을 데리고 차안에서 시달리는 것은 내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으로 과로로 몸이 말라갈 무렵, 남편은 돈 좋아하는 어머니를 잘 모시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사업시도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말 내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을 하는 것뿐이었고, 친정아버지께서도 아들은 그 집 씨니 시댁에 주고 딸 하나 데리고 오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로 이혼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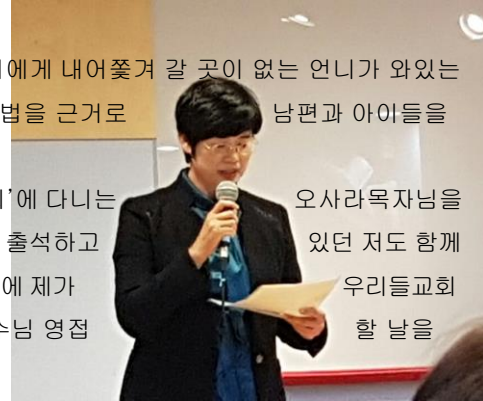
그러나 그 때는 남편이 사업실패로 알콜 중독으로 사람의 형상이 아닌 마귀 그 자체로 변한 상태였고, 카드빚으로 남편과 친정아버지에게 내어쫓겨 갈 곳이 없는 언니가 와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내 의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해 줄 의무가 있다는 인본적인 법을 근거로 남편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며, 직업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아이들과 남편을 부양하고, 언니를 도왔습니다.

잠언3장24절 '무릇지킬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하루 살아갈 즈음에 '우리들교회'에 다니는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혼한 언니를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하기 위하여, 등록을 망설이는 언니와 함께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저도 함께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단지 저를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하는 안내자였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교회를 떠났지만 덕분에 제가 공동체와 함께하며 양육받게 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딸과 남편이 하나님을 모른 채 제 갈 길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안타까워 예수님 영접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딸이 등록을 하고 기초양육을 받기 시작한 것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2014년 3월 23일, 드디어 딸이 기초양육을 마치고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간증을 한다는 딸의 고난으로는 경제적인 고난과 어린시절 엄마가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한 결핍 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예수를 믿고 아빠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것이 성추행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 때는 너무 놀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딸이 긴 세월 동안 혼자서 힘든 날들을 보낸 것을 생각하니 역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이혼할까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혼자서 죽을 때까지 물어 두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목장의 기도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딸의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신과에서 준 약물 부작용으로 전신이 뒤틀려 응급실을 가기도 했고, 영육간에 죽어가는 딸이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딸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도 '세례간증'으로 밖에 본인의 고난을 오픈해서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한없이 무너져 가는 것만 같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쁘고 공부 잘하고 예의바른 딸이었기에 남편대신 기댈 수 있었는데……. 딸이 무너져 가는 것은 남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매일 하나님께 울며 딸의 영육간 회복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는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섰을 때, 정신과에서는 딸의 간증사실을 남편에게 오픈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딸의 우울증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고 남편에게 오픈하라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저도 확신이 없었기에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딸에게 쓰지 못할 상처를 입게 한 죄많은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휴학을 하고 우울증치료를 하는 딸은 여전히 지랄총량을 채우느라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시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과정이라 믿으며 잘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고, 아이들의 영혼에는 관심도 없었던 어리석은 엄마였습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일어날 때에 같이 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 생색,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 할 때에 모든 것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일설교로 새벽큐티설교로 양육해주시는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분들과 주일마다 직장목장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암 수술 무사히 마친 친정 어머니 같은 우리 목사님, 무사히 회복하시어 강건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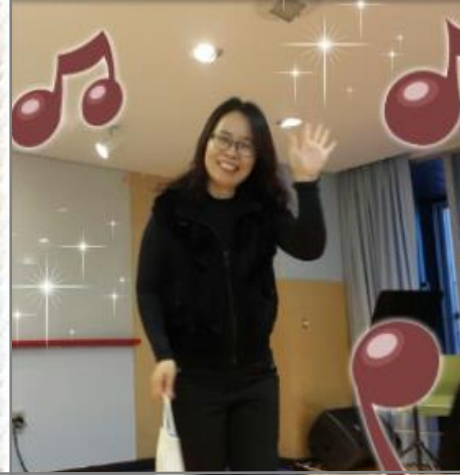


남편과 아이들을
오사라목자님을
있던 저도 함께
우리들교회
할 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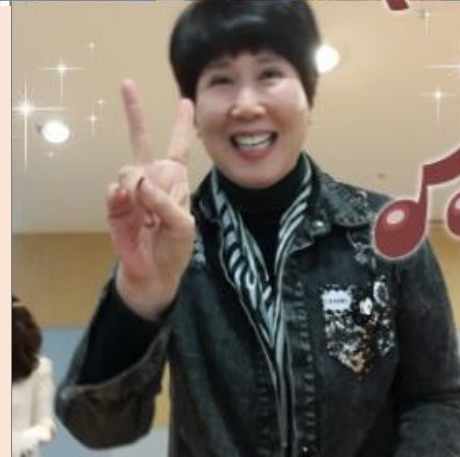


행운권 추첨!!!

주인공은 뉴규^^



행운권 준비는 조수연사모님께서~~
선물은 목자님들의 손길로 준비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소 지루했던 목장소개의 피로가 화~악
풀리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우리 말씀

박성원 초원님

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주셨기에 살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의 아사셀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의 고난은 허상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실상인줄 알고 발버둥을 치는데... 모두 허상입니다. 공동체에 모여서 이렇게 놀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비취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양재의 큐티 노트 • 창세기 3

너는
복이
될지라

마침기도

김영순 평원님

목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설교하시는 사역자님과 일대일양육을 위하여 ,

입시 수능을 위하여 ...

황옥진 집사님 딸 상처를 위해서 기도, 아빠가 교회에 평생 나올 수 있도록...

정은수 집사님 남편이 재산 안 주려고 항소했는데 이 훈련 잘 감당하시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황순옥 집사님 딸이 결혼으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되도록..

기도합시다!!!